

평가일: 2025.05.19

오다연 선임연구원
02-368-5346
dyoh@korearatings.com김종훈 책임연구원
02-368-5523
jhoonkim@korearatings.com 이지웅 실장
02-368-5475
jwlee@korearating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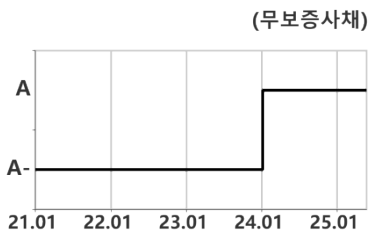
유효등급

무보증사채 A(P)

평가 개요

평가대상		종류	직전등급	현재등급
무보증사채	43	본		A(긍정적)
무보증사채	42-2 외	수시	A(안정적)	A(긍정적)

등급 추이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배, %)

구분	2020(12)	2021(12)	2022(12)	2023(12)	2024(12)	2025(03)
매출액	28,809	37,825	61,270	65,804	69,957	18,569
EBIT	332	351	668	993	1,335	369
EBITDA	388	412	735	1,067	1,416	390
당기순이익	494	380	787	834	1,210	238
총자산	12,191	17,074	18,313	20,597	20,623	23,082
총차입금	6,101	9,288	7,219	7,855	5,097	7,840
순차입금	3,599	7,318	3,599	4,748	1,949	4,758
EBIT마진	1.2	0.9	1.1	1.5	1.9	2.0
EBITDAMargin	1.3	1.1	1.2	1.6	2.0	2.1
EBITDA/금융비용	2.0	2.8	2.5	2.4	3.1	4.2
순차입금/EBITDA	9.3	17.8	4.9	4.5	1.4	3.1
부채비율	287.7	370.6	319.5	254.7	214.7	243.1
차입금의존도	50.0	54.4	39.4	38.1	24.7	34.0
적용재무제표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주) 1. K-IFRS기반 표준재무지표로 조정 재구성한 수치임

2. EBIT = 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 EBITDA = EBIT+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평정 논거

- 전 부문 고른 성장을 통한 실적 개선세 지속
- 안정적인 순이익 창출, 투자 재편으로 재무구조 개선
- 자본 확충 및 투자 통제로 재무안정성 점진적 강화 전망

회사 개요

- 1976년 현대그룹의 종합상사로 설립
- 2009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편입 이후 2016년 계열 분리
- 철강, 석유화학, 승용부품, 기계인프라 등 다양한 트레이딩 사업 영위
- 2025년 3월말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24.3%(유가증권)

등급전망 변경 사유

현대코퍼레이션(주)(이하 '동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변경한다. 주된 등급전망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 부문 고른 성장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동사는 범현대 계열사 매출 비중을 60% 내외로 유지하는 가운데, 자체 영업 역량을 바탕으로 기타 거래처 매출을 확대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미향 변압기 판매 안정화와 군수차량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기존에 이익기여도가 낮았던 에너지상용 부품 부문의 이익이 크게 증가(2023년 89억원 → 2024년 348억원 → 2025.1Q 104억원)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승용 부문이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상용부품의 이익 확대로 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5년 1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1%, 25.8% 증가한 1.9조원, 369억원을 기록하며 적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거래 지역을 다변화하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철강(영업이익 2025.1Q 123억원, yoy +9.8%), 석유화학(39억원, yoy +25.8%), 승용(97억원, yoy +31.3%), 에너지상용부품(104억원, yoy +122.4%) 부문의 이익이 증대되었다.

안정적인 순이익 창출, 투자 재편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동사는 연결대상 부동산펀드(한강국내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부동산 매각대금 4,281억원, 처분이익 339억원)를 청산하고 리츠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감축하고 자본을 확충하였다. 이에 2024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214.7%(YoY -40%p), 차입금의존도가 24.7%(YoY -13.4%p)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기중 운전자본 투자로 단기차입금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2025년 3월말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 34.0%), 일반 차입금 대비 상환부담이 낮은 무역금융 증가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 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7,840억원 중 5,952억원이 무역금융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자본 확충 및 투자 통제로 재무안정성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규제 강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동사는 아시아,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에는 중남미 완성차 거래선 확대, 전력기기와 방산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되고, 각 국의 무역 정책 변화와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순이익 창출 기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신사업 투자, 지분 인수 등에 최대 약 1,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단기 차입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개선된 이익창출력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순이익 창출에 따른 자본확충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등급 변동요인

무역 분쟁 확산과 일부 전방 업황 저하에도 다양한 트레이딩 품목과 네트워크 경쟁력, 우량한 고정거래처에 기반하여 양호한 이익창출을 지속할 전망이다. 차입금 축소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EBITDA/금융비용 지표도 2025년 1분기 4.2배로 개선되었다. 이익창출력 제고를 통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등급 상향변동요인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상향 변동요인	✓ 사업 역량 강화에 따른 외형 확대 및 이익창출력 개선 ✓ EBITDA/금융비용 > 5
---------	--

주) 상기 등급변동요인은 장기신용등급 기준임

구분 (연결 기준)	3년 평균	연도별			
	2022~2024	2022	2023	2024	25.03
EBITDA/금융비용	2.7	2.5	2.4	3.1	4.2

평정 논거 세부 내용

■ 사업요인

다양한 거래 품목, 우량한 거래기반 등 사업안정성 우수

- 트레이딩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 중계 무역, 삼국간 무역 등 다양한 트레이딩 거래 진행
 - 전세계 40여개 해외거점을 통해 여러 국가 및 산업 내 영업력 확보
 - 트레이딩 외 자원개발 사업(오만·카타르·예멘 LNG)의 규모 미미
- 트레이딩 품목 다변화를 통해 시장대응력 강화
 - 철강, 석유화학, 승용, 에너지상용부품, 기계인프라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어 특정 업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 완화
 - 5개 중 4개 부문에서 각각 전체 영업이익의 10% 이상 창출
 - ✓ 2024년 매출비중: 철강 31%, 석유화학 33%, 승용 21%, 기계인프라 6%, 에너지상용부품 7%
 - ✓ 2024년 이익기여도: 철강 34%, 석유화학 10%, 승용 25%, 기계인프라 7%, 에너지상용부품 26%
- 범현대가 거래기반이 사업안정성 지지
 - 현대그룹의 종합상사로 설립되어 오랜기간 그룹의 수출창구 역할 수행
 - 규모의 경제 사업 특성상 물동량이 크고 안정적인 고정거래처 확보가 중요

【주요 거래처별 매출기여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1Q
현대자동차	18.0	8.9	7.6	4.4	6.1	3.8	2.9
현대제철	23.8	19.3	19.4	21.7	19.3	18.9	19.4
HD현대오일뱅크	15.0	11.1	15.3	14.3	11.6	13.3	13.1
기아	9.1	5.0	4.0	12.4	23.1	16.6	17.7
기타 범현대가	7.7	7.1	10.2	5.3	5.5	5.8	4.7
범현대가 소계	73.6	51.4	56.6	58.1	64.7	58.4	57.9
포스코	9.1	8.0	9.8	6.4	6.3	6.4	4.2
SK에너지	4.0	3.2	1.0	2.8	2.2	2.2	1.7
기타	13.3	37.4	32.6	32.7	26.8	33.0	36.1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동사 제시

- 계열 분리 이후에도 시장지위가 우수한 범현대가로부터 안정적 물량 확보
 - ✓ 차량: 현대자동차, 기아
 - ✓ 철강: 현대제철
 - ✓ 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 ✓ 기계인프라: HD현대건설기계
- 현대제철, 현대·기아,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오일뱅크 등 2024년 연결기준 범현대가 매출비중 58.4%(2025년 1분기 57.9%)로 높은 수준

트레이딩에 한정된 사업구조로 PEER 대비 수익성 낮은 수준

● 트레이딩 외 사업기반 미미

- 중간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트레이딩 사업구조상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
-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등 주요 종합상사들은 발전, 물류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의 사업 확대를 이익기반 보강

【주요 종합상사 수익성 비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대코퍼레이션	EBIT/매출액	1.2%	1.0%	1.1%	1.5%	1.9%
	EBITDA/매출액	1.3%	1.1%	1.2%	1.6%	2.0%
	세전계속사업이익률	1.9%	1.5%	1.5%	1.7%	2.2%
	EBITDA/영업자산 ²⁾	9.8%	4.5%	8.5%	10.4%	10.7%
주요 종합상사 평균 ¹⁾	EBIT/매출액	2.8%	3.4%	4.4%	4.2%	3.1%
	EBITDA/매출액	7.3%	4.5%	5.2%	5.3%	4.2%
	세전계속사업이익률	0.1%	5.3%	4.0%	2.7%	3.5%
	EBITDA/영업자산	11.3%	12.9%	17.7%	13.3%	13.7%

주)1.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지에스글로벌, 대림(별도) 5개사 단순평균

2. 영업자산=매출채권+재고자산+무형자산+유형자산(리스자산 포함)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부문별 고른 실적 개선세 지속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전품목 교역량이 크게 위축되며 실적 악화
- 2021년 이후 영업실적 개선세 지속
 - 부문별 업황에 따른 실적 등락이 있었으나, 대체로 개선세 시현
 - 2019년 대비 2024년 각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 큰 폭 증가
- 2023년 승용부문 수출 호조가 전사 실적 견인
 - 승용부품: 중남미, 아프리카, CIS 지역 현대·기아 차량 수출 증가, 신규 거래선 연간 실적 반영
 - 철강: 상반기 유럽내 최대 철강 생산국 터키 지진 영향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등 유럽·미주향 매출 호조 시현, 하반기, 북미, 터키향 고마진 매출 시현 및 일본향 판매 호조
 - 상용에너지, 기계인프라: 호주 전력변압기 수출 이익 실현, 북미 배전변압기 수주 증가, 신흥국 상용차 판매 호조, 멕시코법인 거래 개시에 따른 중남미 건설 장비 거래 확대 등으로 이익창출력 개선
 - 석유화학: 유가 하락, 벙커링 수요 감소, 태풍으로 인한 광 전력청 중유 수출 지연 등
- 2024년 승용 부문 외 전 부문 실적 개선, 기존 비주력부문의 이익기여 확대
 - 매출비중은 작지만 수익성이 양호한 에너지상용부품과 기계인프라 부문의 이익 기여 증가
 - 승용: 완성차 시장 둔화, CIS 지역 일부 거래선 완성차 직거래 전환 등
 - 철강: 유럽·미주향 강관, 자동차강판 등 고부가 철강제품 판매 호조

- 에너지상용부품: 공급자 우위 시장인 북미향 배전변압기 판매 증가, 군용차량 수출 확대, 우크라이나 철도 보수 등으로 이익창출력 개선
- 기계인프라: 중남미 건설장비 판매 확대, 호주 지게차 수출 증가 등
- 석유화학: 광 전력청 공급 품목 증가, 항공유 수요 견조, 벙커유 신규 공급처 개발 등
- 2025년 1분기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부문별 실적 개선세 시현
 - 매출액 1.9조원, 영업이익 369억원으로 전년동기비 15.1%, 31.8% 증가
 - 철강: 관세 정책 영향으로 북미향 매출 둔화되었으나, 유럽향 매출 호조 지속
 - 승용: CIS국가와 유럽향 매출 반등
 - 에너지상용부품: 북미 변압기 판매 호조, 기아 군용차량 판매 확대 등
 - 석유화학: 안정적인 광 전력청향 연료유 선적, 항공급유 수요 견조

【부문별 매출·영업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4.1Q	25.1Q
매출							
석유화학	8,093	13,580	22,340	19,039	23,323	4,701	6,347
철강	11,462	13,423	21,069	19,549	21,490	5,372	5,429
승용	4,352	5,505	11,338	19,477	14,740	3,817	4,112
기계인프라	1,378	2,234	3,208	3,434	4,116	1,132	1,068
에너지상용부품	3,029	2,052	1,674	3,480	5,092	880	1,366
기타	495	1,031	1,641	825	1,196	231	247
합계	28,809	37,825	61,270	65,804	69,957	16,133	18,569
영업이익							
석유화학	71	55	173	101	128	31	39
철강	140	234	364	375	451	112	123
승용	19	24	136	370	336	74	97
기계인프라	18	13	40	59	95	28	18
에너지상용부품	67	9	-54	89	348	49	104
기타	17	16	9	-1	-23	-14	-12
합계	332	351	668	993	1,335	280	369

주) 2024년 승용부품 → 승용, 상용에너지 → 에너지상용부품으로 부품 판매실적 분류 변경,
2023~2024년 개편된 기준으로 작성
자료) 동사 제시

■ 재무요인

안정적인 순이익 창출 기초 유지

- 2020년 영업외수지 양전 이후 안정적 순이익 창출
 - 2016~2019년 선사 대여금 대손상각비, 베트남 11-2 광구 자산감액손실, 강관 반덤핑 관세 등 반복적인 영업외손실 발생
 - 2020년 비경상손실 인식 일단락, 부동산펀드 보유 건물 운영 흑자전환
 - 2020년 이후 자원개발사업 지분법이익 및 배당금수익 증가
 - ✓ 2020년 126억원 → 2021년 158억원 → 2022년 349억원 → 2023년 316억원
 - 2024년 부동산펀드 보유 건물 처분이익(781억원) 실현

【영업외수지·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5.1Q
EBIT	332	351	668	993	1,335	369
영업외수지	206	212	237	101	189	-77
순금융비용	-170	-126	-245	-332	-346	-72
외화·파생관련손익	-69	57	26	-1	116	-81
종속·관계사관련손익	79	73	294	187	60	19
배당수익	52	80	138	113	138	30
부동산펀드 운영손익	42	52	48	50	338	-
부동산펀드 부동산 평가이익	211	17	32	27	-	-
기타	61	59	-56	56	-117	27
세전이익(손실)	539	562	905	1,094	1,525	292
법인세	-45	-182	-119	-260	-315	-54
당기순이익(손실)	494	380	786	834	1,210	238

주)1. “-”는 손실

2. 2024년 부동산펀드 운영손익에 펀드 청산에 따른 투자부동산처분이익 및 분배금 등 비용 반영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자원개발 사업 관련 영업외손실 발생 가능성 내재

- 2024년 내전으로 장기 중단되어 있는 예멘LNG 사업 관련 자원개발자금, 장기대여금, 미수수익 합 손실충당금 179억원 전입
- 2024년 예멘LNG, 오만LNG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각 -381억원, -395억원 인식
- 자원개발사업 관련 추가 손실 발생시 일시적으로 손익구조 저하될 가능성 내재
✓ 2024년말 연결기준 자원개발자금, 장기대여금, 미수수익 잔액 합 418억원

변동성 내재하나, 평균적으로 양호한 현금흐름 창출

● 연말 운전자본에 따라 순영업현금흐름(NCF) 흑자와 적자 반복

- 최근 5년간 영업현금흐름(OCF)은 지속적으로 증가
- 신용거래를 지원하는 사업특성상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 특정 시점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에서 운전자본투자 금액을 차감한 순영업현금흐름(NCF) 등락

● 평균적으로 양호한 잉여현금흐름(FCF) 창출

- 단기의 1회전기간을 유지하며 운전자본투자 회수
- 운전자본투자 외 자본적지출과 배당금지급 부담 작은 편
- 2020~2024년 평균 잉여현금흐름 194억원

[운전자본회전기간 및 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채권회전기간	45.5일	45.1일	35.0일	35.6일	45.8일
재고자산회전기간	17.0일	14.0일	15.1일	14.3일	12.7일
1회전기간	30.5일	38.9일	29.3일	25.6일	28.8일
NCF(순영업현금흐름)	1,408	-3,448	3,865	-699	405
자본적지출	23	64	80	17	15
배당금	76	72	73	72	72
FCF(잉여현금흐름)	1,309	-3,584	3,712	-788	319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부동산펀드 청산으로 재무지표 큰 폭 개선,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우수

- 2019년 부동산펀드 연결편입으로 재무지표 크게 저하
 - 2023년말 부동산펀드 자산(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3,570억 원, 부채 3,219억원(제 1종 수익증권 1,225억원 포함) 인식
 - 실질적인 차입부담은 지표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 ✓ 동사는 제 2종 수익증권 300억원 매입
 - ✓ 부동산펀드 차입금(차입금으로 분류된 제 1종 수익증권 제외시 1,840억원) 과 이자비용의 상환주체가 부동산펀드라는 점에서 타차입금과 상환부담의 차이 존재
- 2022~2023년 자본 확충, 차입금 축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 지속적인 순이익 증가로 빠르게 자본 확충
 - ✓ 2021년 당기순이익 380억원 → 2022년 787억원 → 2023년 834억원 → 2024년말 1,210억원
 - 운전자본투자 관리를 통해 차입부담 축소
- 2024년 부동산펀드 청산 이후 재무구조 큰 폭 개선
 - 부동산펀드 청산(처분가액 4,281억원, 분배금 등 지급 후 처분이익 339억원) 후 리츠 출자(보통주 100억원, 우선주 730억원, 우선주 포함 지분율 46.9%) 방식으로 재투자
 - 부동산펀드 차입금 연결 제거, 처분이익 인식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 ✓ 2024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214.7%(yoy -40.0%p), 차입금의존도 24.7%(yoy -13.4%p)
- 2025년 3월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243.1%, 차입금의존도 34.0%
 - 연중 운전자본투자에 대응하여 무역금융 활용, 매출채권에 상응하는 매입채무 보유
 - 차입금 성격 고려시 실질 상환부담은 지표 대비 완화된 수준이라고 판단

[현금흐름 및 주요 재무지표(연결 기준)]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1(12)	2022(12)	2023(12)	2024(12)	2025(03)
OCF(총영업현금흐름)	530	1,180	1,150	1,227	352
운전자본투자	3,978	-2,685	1,849	822	2,909
NCF(순영업현금흐름)	-3,448	3,865	-699	405	-2,557
자본적지출	64	80	17	15	13
배당금지급	72	73	72	72	0
FCF(잉여현금흐름)	-3,584	3,712	-788	319	-2,571
총차입금	9,288	7,219	7,855	5,097	7,840
현금성자산	1,971	3,619	3,108	3,149	3,082
순차입금	7,318	3,599	4,748	1,949	4,758
차입금의존도	54.4	39.4	38.1	24.7	34.0
부채비율	370.6	319.5	254.7	214.7	243.1
EBITDA/금융비용	2.8	2.5	2.4	3.1	4.2
순차입금/EBITDA	17.8	4.9	4.5	1.4	3.1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등

■ 향후 전망

개선된 이익체력 바탕으로 안정적 순이익 창출 전망

-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견조한 수익 창출 지속 전망
 - 범현대 계열사들의 트레이딩 수요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
 - 자체 사업역량 바탕으로 비계열 거래처 매출 확대
 -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등 범현대 계열사들의 실적 추이와 공급망 재편 계획 모니터링 예정
- 품목 및 지역별 관세 영향 상이할 전망
 - 철강: 북미향 고마진 제품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실적 둔화 가능성 내재, 삼국간 트레이딩 역량에 기반한 대체수요 확보 필요
 - 자동차: 선진국 거래 비중이 낮아 영향 제한적, 실적 호조 지속 전망
 - 에너지상용부품: 공급 우위 시장인 전력기기 판매 호조 예상

자본 확충, 투자부담 통제로 재무안정성 점진적 개선 전망

- 꾸준한 당기순이익 창출을 통해 점진적 자본 확충 예상
- 트레이딩 사업 특성상 경상투자 부담 크지 않은 편
 - 트레이딩 사업 특성상 CAPEX 투자 미미
 - 운전자본 관리를 통해 중장기 현금흐름의 안정성 유지 전망
- 보유 현금과 자체 창출 재원으로 신사업 투자 자금소요 충당 예상
 - 2025년 4월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 지분인수 관련 양해각서 체결 공시

■ 계열요인

유사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 미반영

- 그룹 내 최대 규모의 주력 회사로 중요도 높은 수준
 - 지주회사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의 자회사
- 실질적인 계열 지원주체로 유사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 미반영

■ 유동성 분석

유동성 대응능력 우수

- 단기화된 차입금 만기구조 보유
 - 2025년 3월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의 89.9%인 7,046억원 1년내 만기 도래
 - 단기성차입금은 단기차입금 5,952억원, 유동성 장기차입금 641억원, 유동성 리스부채 54억원, 유동성 사채 399억원으로 구성
- 실질 상환부담 지표 대비 작은 수준, 유동성 대응능력 우수
 - 2025년 3월말 연결기준 현금성자산 3,082억원, 2024년 EBITDA 1,416억원 합 이 단기성차입금 규모 하회하나,
 - 단기차입금 5,952억원 전액 일반 차입금 대비 상환부담이 작은 Usance, D/A Nego 등 무역금융 성격의 차입금으로 구성
 - ✓ 무역금융은 매출채권과 연계, 매출채권 회수를 통해 상환
 - ✓ 매출채권 회전기간 단기, 우량거래처 채권의 건전성 양호
 - 무역금융 제외시 부(-)의 순차입금, 실질 재무부담 지표 대비 낮은 수준
 - 유가증권 상장사로서 자본시장 접근성 보유

【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3월말 잔액	기간별 만기도래 금액	
		1년	이후
단기차입금	5,952	5,952	-
장기차입금	735	641	94
리스부채	156	54	102
회사채	998	399	599
총차입금(B/S)	7,841	7,046	795
(비중)	100.0	89.9	10.1

자료)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종합상사업 신용평가방법론(2024.03.15) 적용 결과

구분		AAA	AA	A	BBB	BB	B
사업	매출규모				○		
	영업자산규모				○		
	사업다각화			◎			
	정보수집능력		○				
	고정거래처		◎				
재무	EBITDA/영업자산		○				
	EBITDA/금융비용				◎		
	순차입금/EBITDA			○			
	부채비율					○	
	재무정책과 융통성			○			
모델등급				○			
기타 평가요소		-		0		+	
외부지원가능성		미반영					

주)1. ◎ 표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의미

2. 외부지원가능성은 유사시 정부 또는 계열로부터의 지원을 의미

본 평가는 당사의 공시된 종합상사업 신용평가방법론(2024.03.15), 신용평가일반론(2025.03.19), 계열 신용평가방법론(2021.07.20)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 www.korearatings.com의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평가시 모델등급은 누적평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적용사유: 사업등급이 부도율평점 기준으로 a 등급 이하, 평균평점 기준으로 bbb- 등급 이상)

본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과 상이한 신용평가방법 등을 적용하거나, 신용평가방법 등을 변경 적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타 자료 등 입니다.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25.05.12이고, 계약체결일은 2025.05.09이며, 평가종료일은 2025.05.19입니다.
- 최근 2년간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용역 건수 및 총액은 각각 3건, 41 백만원(정기평가 포함)입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일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일 기준 2년 이내 비평가용역계약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일 현재 수행중인 비평가용역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을 포함한 당사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 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소속국가의 법적·제도적 규제환경(외환통제, 출자·보종의 제한·금지, 법적지위 변경 등)은 중요한 고려항목 중 하나이나 이를 평가시점에 사전적으로 신용등급에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역외기업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측정보 관련 유의사항]

본문 내 전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평가시점에 있어 당사의 합리적인 분석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예측정보이며, 이는 분석대상업체의 핵심지표 관련 당사의 전망에 기초한 영업손익 추정과 분석대상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지표의 변화 폭이 당초의 예상범위를 크게 이탈하고, 이러한 추세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반영한 Credit 검토를 토대로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는 수급요인이나 환율, 금리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포함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 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정보는 상기 <유의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 제44조 제6항 · 제4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며, 평가의견의 일부입니다.

[장기 채무 신용등급 정의 및 회사채 부도율]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연간 부도율(%)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공식	광의	공식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0.0	0.0	0.0	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0.0	0.0	0.0	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0.0	0.0	0.22	0.92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0.0	0.0	1.42	4.72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3.03	3.03	7.71	10.8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5.0	10.0	14.04	16.3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0.0	NA	14.05	25.62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A	NA	33.33	100.0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0.0	NA	37.06	56.6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인스퍼져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금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f)"를 부기함.
4. 공식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원리금의 적가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화생원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의해 선정된 부도율임.
5. 광의 부도율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제2호에 의해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할약에 따라 원리금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을 포함하여 신정한 부도율임.
6. 연간 부도율은 신용평가실적서의 직전연도 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하고,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은 평균누적부도율표의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함.
7. 연간 부도율은 2024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4년 기준임.

[단기 채무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1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	최소한의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인스퍼져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금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f)"를 부기함.

[장기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최고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거의 없음
AA	매우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BBB	보통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BB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 상존
B	매우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CC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CC	매우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높음
C	최악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불가피
D	채무불이행 상태

-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인스퍼져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금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f)"를 부기함.

[단기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1	매우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2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A3	보통 수준의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B	불안정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	불량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D	채무불이행 상태

- 주) 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인스퍼져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금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f)"를 부기함.

[장기 채무자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익스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단기 채무자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1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익스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펀드 수익증권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양호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저하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투자원본 회수가능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CC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낮아 매우 투기적이다.
CC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다.
C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 내에서 투자원본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익스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채권형 펀드 신용위험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최고 수준이다.
AA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A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높은 수준이다.
BBB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양호한 수준이다.
BB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다소 투기적인 수준이다.
B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투기적인 수준이다.
CCC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매우 투기적인 수준이다.
CC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불량한 수준이다.
C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매우 불량한 수준이다.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익스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등급전망(Rating Outlook)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안정적(Stable)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긍정적(Positive)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정적(Negative)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동적(Evolving)	향후 1~2년 내에 등급이 상향, 하향, 유지될 수도 있어 등급의 변동방향이 불확실한 경우
없음(None)	Rating Watch 가 부여되었거나, C등급 또는 D등급인 경우

주) 1. Rating Outlook은 향후 1~2년 이내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평가시점에서의 전망으로서 당사의 신용등급체계와는 무관한 비등급 기호임.
 2. Rating Outlook은 신용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상의 예고가 아니므로 이후에 신용등급이 필연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즉 Rating Outlook의 의견과 다르게 신용등급의 변경이 가능함.

[등급감시(Rating Watch) 정의]

등급기호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점진적 감시(Evolving)	◇	등급을 변화시켜야 할 요인의 발생이 예상되지만, 이의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점진적으로 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긍정적 검토(Positive Review)	↑	등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의 발생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	등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의 발생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주) 1. Rating Watch는 최대 3개월 이내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의 전망으로서 당사의 신용등급체계와는 무관한 비등급 기호임.
 2. Rating Watch는 신용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상의 예고가 아니므로 이후에 신용등급이 필연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즉 Rating Watch의 의견과 다르게 신용등급의 변경이 가능함.

Copyright 2025. Korea Ratings Inc.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599.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